

익산시 투자유치 노력 결실로 이어져

그린스토어·빛고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등극

연말이 다가오면서 익산시의 끊임없는 투자유치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시장 정현울)는 18일 (주)그린스토어와 투자유치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19일에는 농업회사법인 (유)빛고운과 투자유치각서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찬)는 비타민 변역개선, 다이어트 등 70여종의 건강기능식품을 OEM형태로 생산하여 전국 1만,000여개의 약국에 납품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기업이다. 7,221㎡(2,188평) 부지에 약 50여억을 투자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센터 등 각종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하여 블루베리 혼합가공품, 버섯분말가공품을 직접 제조에 들어간다.

1,681㎡(509평)를 분양받은 (유)빛고운(대표 박금순)은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로 오프라인으로만 납품했으나 양념육, 소스 등을 자체 개발하여 온라인 판매로 이어져 사업 확장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원료수급, R&D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역량을



익산시(시장 정현울)는 18일 (주)그린스토어와 투자유치각서를 체결했다.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 2017년 성과공유회 개최

열린교실·작품전시회 진행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17년에 운영된 강좌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린교실(체험)과 작품전시회로 구성되어 올 한해 수강생들이 배운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을 가진다.

평생학습체험 열린교실은 18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되며, 체험 내용으로는 ▲우리 집 장바구니 만들기, 에코백 ▲생활 속 만능 물티슈 ▲핸드메이드, 동장지갑 ▲나만의 열쇠고리 등 강좌별 선착순 20명 내외의 참여를 통해 평생학습관 강좌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작품 전시회에서는 인문교양 5점, 문화예술 30점, 생활문화 50점, 어린이 23점, 장애인 10점, 야간 강좌 10점 등 총 23개 강좌에서 활동한 수강생들이 1년여의 시간동안 열정을 담아낸



140여점 작품들을 전시한다.

지난해 공유회에서는 20개 강좌, 60여점의 다양한 작품들로 평생학습에 대한 학습공동체 형성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던 만큼 1년의 배움을 마무리하는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도 많은 시민들과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대성 인재양성과장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수강생들이 모여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정착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기자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강경숙 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위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강경숙(사진) 교수가 중앙기 교육정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원광대 강경숙 교수를 비롯한 11명이 민간위원에 포함됐다.

위촉 위원들은 앞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을 논의한다.

강경숙 교수는 "교육개혁은 아무리 잘 해도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고, 많은 일이 꽃길은 걷는 것이기보다는 가시밭길이라고 생각되지만, 책임감을 갖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교육을 잘 기획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숙 교수는 SSC급 국제학술지 논문 등재와 마르퀴즈 후즈 후 세계인명사전 등재, 국제특수교육학회(CEC)에서 발달장애 연구 단독 발표를 비롯해 미국 위싱턴대학교 교수들과 '지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공동교제 저술 등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국립 군산대학교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7년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지정서 및 지정패를 수여받았다.

이를 통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이 3년간 유지되고, 인증지정서 및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 받게 되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한 해 동안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동아리 등을 선정해 포상하고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돼 공유를 통한 교육기부 활성화에 활용되고 있다.

군산대학교는 대표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총장 및 교수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9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해 총 30회 8,000명 내외의 전폭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활동을 실시해 왔다.

/군산=김관곤기자



육군 장교 양성 요람으로 거듭나

원광대 군사학과, 학사운영평가 전 항목 우수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군사학과가 2017년 학·군 협약 대학 학사운영평가 결과 전 항목에서 최고점인 우수평가를 받아 최고의 미래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거듭났다.

군사학과 교육체계 발전과 우수군 장교 육성을 위해 육군본부가 시행하는 학사운영평가는 학·군 협약 12개 대학의 군사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원광대 군사학과는 전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2017년도 육군 학사운영평가 최고 우수 대학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우수학생모집, 학생관리, 대학본부 지원, 교과 편성, 졸업 및 입관, 위탁 훈련, 대학원 학위과정 관리, 홍보 활동 육군 추천 우수교수 채용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결과가 나온 가운데 원광대 군사학과는 9개 전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원광대는 사격능력 배양을 위한 영상 모의사격장 시스템을 구비하고, 재학생들의 문화탐방 지원 등 창의적인 학생 관리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사학과장 김태성 교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김도중 총장을 비롯한 대학의 아낌없는 지원과 군사학과 학생 및 교수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에 장교를 양성하는 민간대학 사관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수도사업소, 화합·소통 워크숍 개최

군산시 수도사업소는 지난 1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도과, 하수과 직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2017년 수도사업소 화합·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도사업소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양질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이 중요하기에 '건설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사고 사례, 예방대책 등 상하수도 관련 안전사고 예방교육

을 실시했으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으로 민원 응대시 우수사례, 경험담 신규직원들의 다짐 등 시 수도사업소 내 1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간의 소통의 물꼬를 트고 서로가 단결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래 시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기자

익산 금마 옥룡천 교량 4개소 경관개선사업 완료

우리나라 4개 고도(古鄣)중 하나로 지정된 익산시(시장 정현울)는 금마면 시가지의 주요 요소인 옥룡천 구간의 교량 4개소 경관개선사업을 지난 1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도육성사업의 일환인 옥룡천 옛 물길 회복사업의 단계별 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

2016년부터 이따가 사업을 마무리해 옥룡천은 자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역사문화형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동고도, 금마교 인도교, 동고도교 총 4개 교량은 각각 고도 백제를 모티브로 한 난간설치와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저녁에도 색다른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교량 주변의 도로(옥룡천 탐방로)재포장, 낡은 펜스교체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옥룡천이 자연과 지역민이 어우러져 함께 가꾸고 상상할 수 있는 역사문화형 생태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어 주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기억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차적인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해 익산 고도만의 역사문화환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